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친구 관계, 공부 방향, 진로 문제 등에서 “이게 맞을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시선이나 결과가 두려워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따라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는 롯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유혹 앞에서 거절해야 할 때, 혹은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과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딛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